

#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 제3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2026. 3. 13.(금), 농어업정책팀

##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6. 3. 13.(금) 10:00 ~ 12:00 / 여주 구양리 마을
- 목적 : 구양리 마을 사례 분석을 통한 햇빛소득마을 확산안 마련
- 참석자 : 17명
  -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 위원 11명(불임)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농특위 사무국 5명

## □ 주요 회의내용

- (전주영 위원)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과 농촌 입지의 불가피성
  - (태양광 발전 소요 용량 추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태양광 용량은 시나리오에 따라 275GW\*에서 450GW\*\*에 달함.
    - \* 녹색전환연구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K-맵 연구 자료
    - \*\* 마을과 MOU를 체결한 영농형 태양광 연구 학자
  - (비농지 설치의 한계) 건물 지붕 등 비농지의 잠재 용량은 매우 제한적이며 제약 사항이 많음
  - (농지 점유 및 훼손) 결과적으로 태양광의 90% 이상이 농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
    - 일반 태양광(농촌형)으로 탄소중립 용량을 채우려면 농지의 29.5%를 훼손해야 하며, 영농형으로 해도 농지의 50.1% 면적이 필요함.
  - (외부 자본 침탈 우려) 1MW 설치에 약 14~16억원 소요, 고령화된 주민들은 자금이 없어 결국 외부 자본이 밀려들어 농지를 침탈하고 훼손할 것이며, 농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껴 반대하는 핵심 이유임

## ○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모델의 특징 및 추진 경과

- (마을 공동 자산 활용) 주민이 주인이 되는 길을 찾기 위해 개인 지분이 아닌 마을 자산을 선택함.
- 개인 주택 지분은 무허가 건물이 많고 어르신들이 '20년 뒤 내가 살지 모른다'며 반대하여 포기하고, 선배님들이 일궈놓은 창고와 공동 부지를 활용함
- (사업비 구조와 확산성) 용자 중심의 설계를 통해 전국적인 확산 모델을 지향
  - 보조금 사업이 아닌 자부담 10%와 용자 90%로 설계하여 예산 부담을 줄였으며, 용인 SK 반도체 관로 통과 보상금으로 구입한 농지를 담보로 활용해 대출 문제를 해결함
- (100% 마을 소유 및 평등 배분) 개인 출자를 배제하고 마을 기금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함
  - 수익 편중을 막기 위해 개인 자산을 쓰지 않고 만 원의 출자금조차 마을 돈으로 내어,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똑같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구조를 확립함
- (수익의 복지 환원) 연간 약 1억 1,100만 원의 순수익을 모두 공동체 복지에 투입함.
  - 월 1,000만 원 수준의 순수익을 나누지 않고 100% 복지에 쓰기로 결정하여 마을 사무장 인건비,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함
- (무료 마을 식당 운영) 주민 유대감 강화와 신규 주민 화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함.
  - 월~토 점심을 주민들에게 무상 제공하며 한 식구가 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조리장과 노인 일자리 5명을 채용하여 시급 11,000~12,000원의 급여를 지급함
- (이동권 보장 및 여가 활동 지원) 고령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함.
  - 마을 승합차를 구매하여 사무장이 어르신들의 노인대학 및 병원 이동을 지원하며, 하우스 탁구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을 개조해 겨울철 사랑방과 운동 공간으로 활용함

- (문화 복지 및 공동체 행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도시 수준으로 향상
  - 콘서트 등 문화 공연 단체 관람을 실시하고, 찬조금 없는 마을 여행 연 2회 무상 추진하며, 추석 노래자랑과 설 윷놀이 행사를 매년 지원

## ○ 햇빛소득마을 확장 가능성 및 정책 제안

- (에너지 자립 마을 고도화) 개별 가구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 창출을 결합함
  - 가구당 태양광 용량 제한을 30kW까지 높여 냉난방비를 해결하고 남는 전기를 매전하여 소득을 올리며, 마을 단위 ESS(저장장치)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직접 소비해야 함
- (유휴 공유 자원 활용) 농지 외의 부지를 통한 수익 다각화 모색
  - 고속도로 방음벽, 하천 부지, 비축 농지 등을 마을에 우선 빌려주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2·3차 사업으로 확장 가능함
- (저탄소 농업과 농기계 전기화) 기술과 마을 공동체를 결합한 미래 농촌 모델 구현
  - 정기 농기계 보급을 지원하여 농기계 배터리를 이동형 ESS로 활용하고, 저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변화도 마을 단위에서 실현 가능함
- (영농형 태양광의 소유 형태) 외부 자본 침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농지에는 반드시 영농형만 허용하되, 개인에게 직접 열어주면 편법이 난무할 것이므로 반드시 마을을 통해 청년 농업인과 실경작자에게 쿼터제로 부여해야 함

## ○ 햇빛소득마을 제도적 개선 사항 및 행정적 난제

- (마을회의 법인격 부여) 법적 실체 부재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법인격을 통한 문제 해결
  - 비법인 사단인 마을회는 법적 실체가 없어 담보 인정이 안 되는 등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마을을 법인화하고 공적인 마을 정관제를 도입해야 함

- (갈등 관리와 정책의 본질) 소소한 다툼보다 농촌 소멸이라는 거시적 위기에 집중해야 함.
- 주민 간 다툼 우려로 사업을 주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며, 법과 제도를 보완해 정치와 행정의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함

## □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태양광 소분과 회의(4월 초순, 일자 미정) 시 사례 집중 분석 후 햇빛소득마을 추진 확산 세부안 마련
- 제4차 전체회의는 소분과 의견 취합 후, 추후 일정 마련

**붙임****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참석명단**

소 속	직위/직책	성 명	비고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	한석우	
(사)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남재우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권준엽	박해청 위원 대리 참석
농어촌연구원	원장	이승현	
(사)지구행동	이사	임송택	
경기 여주 구양리	이장	전주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지현영	
(사)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홍명희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윤영만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이상철	
칠성에너지영농법인	본부장	최동석	